

첼로 선율과 꽃그림의 감미로운 만남

한희원미술관서 열린 클래식 연주회

첼리스트 김창현·피아니스트 조정원
슈베르트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연주

나주 무지크바움 하우스 콘서트 연계
3월 11일엔 '베토벤'서 임재홍 독주회



지난 27일 한희원미술관에서 열린 김창현의 첼로 공연은 음악과 그림이 어우러진 행복한 행사였다.

오랜 기념각, 이장우 가옥 등이 자리한 양림동은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 오래된 공간은 오래된 대로, 새로 문을 연 곳은 새로운 기운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7월 문을 연 한희원미술관은 명소로 자리잡았다. 지난해에 이 작은 미술관에 1만여명이 다녀갔다. 양림동 나들이에 나선 이들은 낯은 한옥을 리모델링한 소박한 미술관에서 발길을 멈추고 차 한잔 마시며 그림을 감상한다.

지난 27일, 봄기운이 완연했다. 가끔 눈에 띄는 매화를 제외하곤 아직 꽃소식은 오지 않았다. 대신 한희원미술관에 화사한 꽃이 피었다. 미술관엔 다양한 꽃그림을 비롯해, 봄 내음이 물씬 나는 작품들이 관람객을 맞았다.

이날 밤 미술관에서는 감성을 울리는 첼로와 피아노 소리가 가득했다. 언제나처럼 오디오 기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음악이 아닌, 날 것 그대로의 선율이다.

한희원미술관에서 음악회가 열렸다. 미술관 개관 후 처음으로 열린 클래식 연주회다. 이번 음악회는 (사)무지크바움과 함께 준비했다. 나주에서 꾸준히 하우스 콘서트를 열고 있는 무지크바움은 지금까지 모두 90여차례 연주회를 진행했다. 모임을 이끌고 있는 조기홍 대표는

지난해부터 나주 뿐 아니라 광주에서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찰 광제사에서 무지크바움양상블과 바이올리니스트 임재홍씨를 초청, 연주회를 열었다.

올해 첫 출발은 한희원미술관이다. 무지크바움은 지난해 나주현대음악제 행사 중 하나로 피아노를 기증받아 페인팅 작업을 한 후 연주하는 이벤트를 진행했고 한대를 한희원미술관에 기증했다. 음악회를 준비하며 한 작가는 기존에 걸려 있던 작품을 봄향기 가득한 작품으로 교체하고, 피아노에도 새롭게 그림을 그렸다.

'슬픔의 승화'를 주제로 열린 이날 연주회의 주인공은 서울바로크합주단원 등으로 활동중인 첼리스트 김창현, 피아니스트 조정원씨였다.

압권은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였다. 또 슈만의 '현정'을 비롯해 앙코르 곡도 세곡이나 이어졌다. 오페라 '루살카' 중 '달에 부치는 노래', 피아졸라의 탱고 음악 '오블리언'에 이어 마지막 곡은 첼리스트 김씨가 가장 좋아한다는 생상스의 '삼손과 데릴라' 중 '너의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가 장식했다. 애잔한 멜로디의 유영 아리아를 저음의 첼로로 듣는 건 또 다른 매력이었다.

갤러리 조명을 적절히 활용해 연주자들이 자리한 공간만 하이라이트를 비춰 공연의 집중도를 높인 것도 좋았다. 이날 음악회에 참석한 이들은 연주자의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생생한 연주와 함께 어우러진 그림 등을 감상하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다. 연주자들 역시 정식 공연장은 아니지만 한옥 미술관의 울림이 좋아 연주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고 전했다.

(사)무지크바움은 3월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재홍씨를 초청, 나주 안성현홀(13일)과 광주 클래식음악감상실 베토벤(11일)에서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등에서 수학한 임씨는 서울 바로크합주단원으로 활동중이다. 레퍼토리는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소나타'와 '파르티타' 등이다.

한희원 작가는 "음악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기는 했지만 많은 관객들이 참여한 것을 보고 이런 행사에 목말라하는 이들이 많다는 생각을 했다"며 "앞으로도 클래식 음악회 뿐 아니라 문화과의 만남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의 무지크바움 010-6422-1991. 한희원미술관 062-653-5435. /글·사진=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여성 서예단체 '지선묵연회' 회원展

3월3~9일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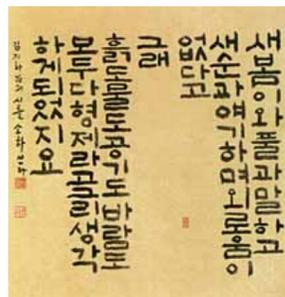
지선묵연회(회장 소하 김화자)가 3월 3~9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제16회 지선묵연회'전을 개최한다.

학정 이돈홍 선생의 여성 제자들로 구성된 지선묵연회는 지난 1984년 결성됐으며 광주 지역 여성서예단체 중 가장 오래됐다.

이름은 대학(大學) 첫머리에 나오는 '재지어지선(在止於至善)'에서 '지선' 두 글자를 따왔다. 먹으로써 인연을 맺은 회원들이 서예를 통해 지극한 선(善)에 머무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회원들은 2년에 한번씩 정기전을 열어 작품 공개와 함께 서예 교류에 힘쓰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회원 42명이 참여해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와 한글, 문인화, 전각 등 작품 68점을 선보인다.

김화자 회장은 김지하의 시 '새봄' 내용을 쓴 한글작품을 출품했다. '새봄이 와 풀과 말하고 새순과 얘기하며 외로운



소하 김화자 작 '김지하님 시'

이란 없다고 그래...'를 옮겨 적으며 봄을 맞은 감성을 들려준다.

이돈홍 선생은 글원의 시 '람민덕연작보'(覽民德焉錯輔) 작품을 찬조출품하며 제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문의 062-360-843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도청도 분수대도...핏빛 물든 '광장의 기억'

김병택 3월 13일까지 베이징 포스 갤러리 개인전



'광장의 기억'

김병택 작가가 중국 베이징 포스 갤러리에서 3월1일부터 13일까지 개인전을 개최한다. 김씨는 사실주의·상징적인 어법으로 광주 5월 정신과 관련해 도청과 그 주변 풍경을 꾸준히 기록해오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광장의 기억'을 주제로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붉은색 바탕 위에 재현한 200~300도 20여점이 선보인다.

작품 '광장의 기억-신목神木', '광장 이후-분수대', '그날의 기억-도청' 등은 모두 옛 도청 건물과 주변을 소재로 삼았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처럼 작가는 옛 도청을 온통 핏빛으로 표현

하고 있다. '광장의 기억-신목神木' 속 푸른 나무는 핏빛 도청건물과 대비되며 옛 기억과 흔적을 환기시킨다. 작가는 피로 얼룩진 민주주의 역사와 정면으로 대치하는 푸른 생명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야기한다.

광주민족미술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씨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을 삽 모형에 넣은 '삼철공화국'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이 작품은 국정원과 광주시로부터 철거 압력을 받아 논란이 됐다.

문의 062-236-051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푸른연극마을 '도둑과 연인' 무대 3월 10일까지 씨어터 연바람

빈집 털이 줌도둑이 집주인 사랑싸움에 끼여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유쾌한 로맨틱 코미디가 공연된다.

푸른연극마을이 '도둑과 연인'을 오는 3월10일(월·화요일 공연 없음)까지 씨어터 연바람(광주시 동구 동명동)에서 공연한다. 평일 오후 7시30분, 토·일요일·공휴일 오후 4시.

질박함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청춘들의 사랑과 현실을 무겁지 않고 유머러스하게 풀어낸 코미디 작품이다.

어리숙하고 순진하기만 한 작가 지망생 남자 김성민, 그와 함께 학습지 교사를 하며 역척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알가닥 여자 오혜교, 어느 날, 그들이 사는 원룸에 줌도둑이 들어오면서 이상한 공생 관계가 이어진다.

극단 대표 오성완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천유진·윤사랑·엄현호씨가 출연한다. 극본은 전상배 (부산 극단 어니언킹 대표)씨다.

티켓 가격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5000원. 푸른연극마을(blog.naver.com/greentheater) 문의 062-226-244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